

29일부터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

4년제 내년 1월2일·전문대 1월12일까지...공통원서 작성 미리 확인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29일부터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수험생들이 '공통원서 접수' 준비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6일 대교협에 따르면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는 한 번의 공통원서 작성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2016학년도 정시 때부터 시작됐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전문대학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다.

원활한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본인이 원서접수 사이트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했는지, 공통원서와 공통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지를 미리 확인하면 좋다. 원서접수 대행사(유웨이애플라이,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을 통해 원서접수 사이트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대행사를 통해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모집에서 작성한 원서가 있다면 재활용할 수 있지만 수시모집에 지원하지 않은 수험생은 사이트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는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며, 수정해 제출할 수도 있다.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한 후 복사·붙여넣기를 할 때는 윈도OS(WindowsOS)를 이용해야 오류가 없다. 맥OS(macOS)에서는 글자 분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컴퓨터에서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도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면 콜센터(유웨이애플라이 1588-8988, 진학어플라이 1544-7715)에 문의하면 된다.

대교협은 수험생들을 위해 유튜브 '대학어디가 TV'에서 원서접수 방법을 정리·안내하고 있다.

또한 대입정보포털 사이트인 '어디가' (<https://adiga.kr>)에서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대한 대학별 주요 사항도 안내한다. 사이트에서는 지난해 입시결과와 성적산출 서비스를 활용, 지원 가능한 대학을 진단할 수 있으며, 대교협 전화상담(1600-1615)과 온라인 상담으로 진학을 설계할 수도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고려인 역사 복원 나선다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역사유물 전산화 업무협약 체결

호남대가 고려인 선조들의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에 나선다.

호남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단장 최영화)은 최근 고려인문화관에서 사단법인 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아), 월곡고려인문화관 결(관장 김병학), 무형문화연구원(원장 함한희)과 고려인 역사 자료 1만2000여 점의 전산화 자료 구축 및 해제 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역사 자료에는 고려인 선조들의 경제, 사회, 문화, 문학 부분 역사 등이 포함돼 있다. 협약을 맺은 네 기관은 고려인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인 역사유물 자료의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들 기관은 고려인 선조들의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여 국내 귀환 고려인동포들에게는 한민족의 자랑스런 긍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내국인들에게는 숭고한 애국정신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네 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고려인마을과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결과물을 탑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최영화 단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과 향유하는 사업"이라며 "고려인 역사유물자료의 아카이빙에 협력하여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료화를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조선 말 고려인 연해주 이주자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선조들의 독립전쟁사 등이다. 고려사범대학과 고려극장, 고려일보 자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정착사, 한글문학, 모국어 보존 관련 자료 등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

전남교육청, 미래교육 전환 위한 인공지능 수업 확산

AI교실 구축 학교 담당자 대상 '온-오프연계 수업 나눔 콘서트'

전남교육청이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AI) 수업 확산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인공지능(AI) 교실 구축 학교 교직원과 인공지능(AI) 교육 선도학교 담당자 및 인공지능(AI) 교실 구축 희망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오프연계 수업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수업 나눔 콘서트에는 백도현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섭 미래인재과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조숙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AI교실 구축 현황 및 AI교실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청은 2022학년도에 AI교실을 52개교에 구축했으며 이번 수업 나눔 콘서트에서는 그 현황을 포스터로 전시하고 성과를 공유했다.

초·중등학교에서의 AI교실 구축 사례 및 수업 사례를 현장 교사들의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 전문가들로부터 AI교실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전남도교육청이 개최한 '온-오프연계 수업 나눔 콘서트'.

<전남도교육청 제공>

했다. 콘서트에 참여한 조숙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AI교실 구축학교 포스터를 보면서 선생님들의 공간 구축 및 AI교육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특히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AI교육이 앞장서야 할 것이며 도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섭 전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탄탄한 전남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기초 기본 교육 뿐 아니라 창의융합 교육도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AI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BI센터 투자유치 역량 강화

수도권서 입주기업 'IR-Day' 개최...5건 투자유치 성과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가 광주·전남 창업 기업들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유관 기관과 힘을 모았다.

동강대 BI센터는 최근 서울 여의도 IFC Seoul 3층에서 '2022년 BI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제6회 입주기업 투자 IR(Investor Relations) Day'를 개최했다.

동강대는 지난 2017년부터 BI센터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IR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광주대·남부대·동신대 등 4개 대학 BI센터, (재)환경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등과 공동으로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날 동강대 BI센터 입주기업인 ㈜더드림메이커스, ㈜로열프레시, 쓰리에스 등을 비롯해 8개 기업이 행사에 참여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엔젤투자자 및 벤처투자자 앞에서 회사 홍보에 나섰다. 5건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또 투자자와 네트워킹 시간을 갖고 창업과 관련

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앞으로 동강대 BI센터는 IR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자금, 입주 여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투자유치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동강대 BI센터 박경우 센터장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중요하다"며 "수도권에서 6년째 IR 행사를 열고 있는데 매년 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대, 우수상담기관상...진로·심리상담 성과 인정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학생상담센터는 전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협의회(이하 전상협)가 주관한 우수 상담기관에 선정돼 우수상담기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상협은 1977년에 설립되어 전국 240여 회원의 학교를 대상으로 상담운영, 상담전문, 상담사(개인) 부분에서 성과를 보인 대학을 매년 시상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상담기관의 진로·심리영역 통합상담 운영 모형과 매뉴얼의 내용 및 운영 사례 ▲진로·심리영역 통합상담 모형 구축과 운영에 따른 진로·심리상담의 양적·질적 성과를 인정받아 상담운영 부문에 선정됐다.

학생상담센터 김경은 센터장은 "광주여대 학생상담센터의 유능한 전문상담사들이 늘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기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



기에 이번 우수기관상 수상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교내 구성원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위한 대학생활 적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익한 진로·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